

# 바이오칩

“정말 젊어지는 게 확실합니다. 영식은 약간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런 말에 몇번이나 속았던 것을 생각하면 울분이 치밀 지경이었다. 특히 그렇게 빠져나간 비용을 생각하면...”

“물론입니다. 이건 최신 제품입니다. 옛날 것과 기능이 전혀 달라요. 당신 얼굴을 보니 몇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 같군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거울을 보지 않더라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알 수 있었다. 새하얀 머리에 쭈글쭈글한 얼굴.

“그럴 겁니다. 사실 옛날 제품들은 다 그저 그래요. 유전자 검사에나 쓰는 거죠. 기능이라곤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증합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 한번만 더 속아보기로 하자. 영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바이오칩을 이식하기로 했다.

“어때? 좀 젊어진 것 같아?”

미영은 그의 얼굴을 요모조모 뜯어 보았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그래도 희망을 주기로 했다.

“약간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식한 지 얼마나 지났어?”

“응. 일주일.”

미영은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다. 겨우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젊어졌다

고 물어? 호르몬 주사도 일주일은 간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그래? 그럼 한달만 지나면 정말 젊어지겠다. 이십대로 보일 것도 같은데?”

“에이, 설마. 이십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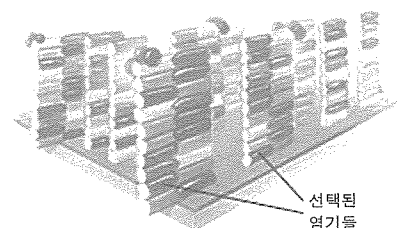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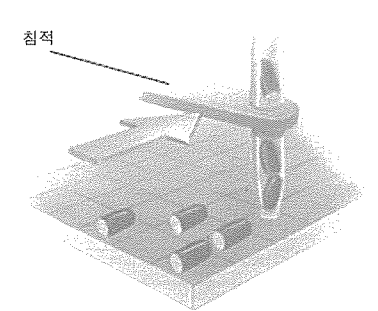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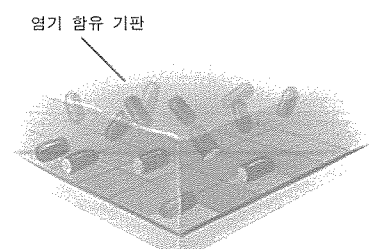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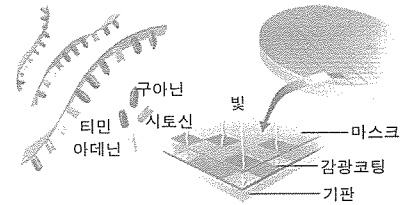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식의 얼굴에는 함박 웃음이 가득했다.

사실 영식은 친구들에 비해 너무 늙어 보였다. 친구들은 젊었을 때부터 호르몬 주사를 맞고 유전자 요법도 받고 해서 그다지 늙지 않았다. 반면 친구들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을 때, 영식은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돈이 아깝다.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운동이나 열심히 해. 운동이 최고라니까.”

물론 운동이 최고인 듯했다. 최소한 나이 오십을 넘기 전까지는. 친구들이 온갖 처방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동안, 그는 스키, 요트, 등산, 철인 경기 등 온갖 스포츠를 섭렵하면서 건강한 삶을 즐겼다.

그러나 오십대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졌다. 가장 먼저 눈에 뜨인 것은 외모였다.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된 탓에 피부는 급속히 탄력을 잃어갔고 머리칼은 하얗게 변해갔다. 반면에 온갖 부작용에 시달리던 친구들은 여전히 이십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바이오칩 제작 과정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운동이 최고라고 외치던 그는 결국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너무 신경을 안 쓰셨군요.” 그의 노화 상태를 살펴본 의사가 처음 한 말이였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수십년은 늙은 기분이 들었다.

“일단 심리치료를 받고 오세요.”

“네?”

영식은 무슨 말이나고 되물었다. 심리치료라니?

“호르몬 주사, 유전자 요법, 장기 이식 같은 걸 한번도 안 하셨다고 했죠?”

“그럼요. 건강한데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반문했다. 의사는 그의 물음을 무시했다.

“대신 보신 식품은 골고루 드셨네요? 웅담, 사슴 피, 지네, 굼벵이…”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거요. 하지만 의사는 생각이 다른 모양이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댁은 ‘자기 과신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그 증세를 치료하지 않는 한 노화 회복 치료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난 건강하다니까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약을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과시 증후군이라고요?”

의사는 흥분해서 책상까지 두드리며 열변을 토하는 영식을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는 영식의 흥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전에는 자기 건강을 너무 믿는 나머지, 최신 치료법들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최신 치료법들이 무수히 나왔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세계 의학협회는 그런 정신 상태를 ‘자기 과신 증후군’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죠. 하지만 자기가 그런 증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학 잡지를 읽지 않으니까요.”

물론 영식은 헛소리라고 일축하고 병원을 나왔다. 하지만 몇달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염색약을 써야 할 정도로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으니까.

심리치료는 두달 동안 이루어졌다.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근육의 강도가 건강의 척도라는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노화 억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신주의는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듯 했다. 그는 운동과 보신 식품 대신 최신 치료법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받아야 하는 치료법을 거부하고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았다. 그 때문에 젊어져 가던 그의 육체는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점진적인 치료가 행해졌다가 갑자기 속성 치료법이 행해지고, 방치되기도 하고.

그렇게 다시 오십년이 흘렀다. 백살. 영식의 외모는 나이 그대로였다. 친구들은 이제 겨우 사십대의 모습이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마지막이라고 결심하고 다시 속성을 추구하는 바이오칩을 이식한 것이다. 그런데…

“어때?”

“약간 젊어진 것 같은데?”

미영은 점점 지켜워지기 시작했다. 영식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했다. 자신은 똑같은 대답을 하고.

“어때? 좀 젊어진 것 같아?”

미영은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솔직히 영식의 모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미영은 이제 미안해서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지겹기도 하고,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혀. 이제 그만해. 넌 조금도 젊어지지 않았어. 그걸 이식한 뒤

로 말아야.

하지만 생각 뿐이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전과 같았다.

“약간 젊어진 것 같아.”

“그래? 역시 그렇지?”

이런 걸 자기 최면이라고 하는 것일까? 영식은 기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때였다. 가득 몰려든 구름 사이로 번개가 쳤다. 공교롭게도 번개가 내려쬐힌 곳은 영식의 몸이었다.

며칠 뒤. 미영은 영식의 병실을 방문했다. 영식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좀 어때?”


“괜찮아.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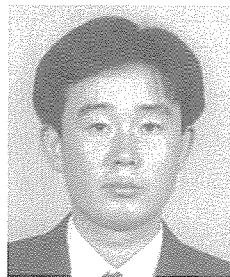
영식은 울먹이기 시작했다.

“왜 그래?”

“침이 타버렸대. 전화했더니 그게 단 하나 남은 제품이었다.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안 만든다는 거야. 이제 나 어떡해.”

미영은 말없이 그의 뉘두리를 듣다가 밖으로 나왔다. 미영은 의사를 찾아가 간단한 부탁을 하고는 병원을 나섰다.

“노화 회복제 좀 왕창 놓이주세요. 참, 최신 제품이라는 말 꼭 하고요.” 



이 한 음 <작가>